현대불교

제 797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8월 18일 수요일 (음력 7월 9일 · 불기 2554년 · 주간)

14 간화선 세미나 **혜국 스님**
법이란 중도연기를 달리 표현할 뿐 그 근본 뜻은 달라진 게 전혀 없다. 본분사이기에…

6 7 특집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

9 현장 속으로 **원심회 여름캠프** 11 특집 **만해축전**

수능 100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100일 앞둔 8월 11일, 팔공산 갓바위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는 기도를 올리기 위한 수험생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수험기도는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강남 봉은사 등은 전국 주요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사진은 조계사에서 기도하는 모습. **박재완 기자**

불교문화가 포교열쇠

각정 스님 "통합정보센터 설립 시급"

개신교계가 일간지 광고와 성명서 등을 통해 연일 불교계를 공격 중이다. 정부 지원 예산이 문화재 보수, 템플스테이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불교계에 편중됐다는 것이 개신교계의 주장이다. 불교계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에 개신교계가 비판을 그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 소외됐던 불교문화가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문화는 포교의 수단이기 이전에 우리 민족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문화는 민족문화와 다르지 않다. 특히 템플스테이와 선수행, 산사음악회 등은 불교문화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문화 대중화가 되려면 불교문화 관련 정보를 결집한 통합정보센터와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를 연구 · 개발할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각정 스님은 "선수행, 연등축제, 템플스테이, 산사음악회 등이 보다 대중화되려면 불교문화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정보센터를 마련하고, 욕구별 · 수준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교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평가를 위한 연구센터 설립도 주장했다.

스님은 "템플스테이만을 관리하는 불교문화사업단을 확대해 선수행, 산사음악회 등 불교문화 프로그램 전반을 다루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범종단 차원의 통합정보센터를 설립해 불교문화를 종합적으로 관리 · 감독하자"고 말했다.

통합정보센터가 불교문화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행정기관이라면, 연구센터는 불교문화 콘텐츠 등을 전담해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기관이다.

각정 스님은 "(가칭)불교문화연구센터를 세워 불교문화프로그램 연구와 참여자 평가, 일반대중 욕구조사 등 불교문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인터넷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불교문화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방문자에게 불교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자"고 말했다.

한편, 중앙승가대는 개교 30여 년 만에 첫 박사인 각정 스님과 지은 스님의 학위수여식을 8월 19일 오후 2시 대학본부 3층 교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지은 스님의 박사학위청구 논문 주제는 '규봉 종밀의 선사상 연구'이다. 관련기사 2면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자 개종에 놀라"

승가대 1호 박사 각정 스님

"논문을 준비하던 중 불자 가운데 개종하는 이가 적지 않다는 데 놀랐습니다. 비불자에게 부처님 법을 알리는 것만큼이나 불자에게 부처님 법의 맛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앙승가대 박사 1호인 각정 스님은 "불자와 비불자 모두에게 부처님 법을 알리는 방법은 불교문화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스님이 '현대 한국 불교문화 대중화의 연구'를 주제로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한 이유이다.

월탄 스님 법상좌로 법상종 포교원장을 맡고 있는 각정 스님은 1982년 평택 쌍미륵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연예인자비회를 운영하며 전국 사찰에서 산사음악회 등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기획 · 진행해 왔다.

각정 스님은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전국 사찰을 수차례 돌아다녔다"며 "어른스님들이 경전 위주의 내전이 아닌 외전에 노력하는 것을 이해 못할 때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개별 사찰마다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동섭 기자

남북불교도 8 · 15 동시법회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남북불교도들은 8월 15일 '조국통일기원 8 · 15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봉행하고 공동발원문을 통해 화해와 통일을 기원했다.

광복 65주년을 맞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과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은 13일 남북공동발원문을 채택 발표했다. 공동발원문은 15일 서울 봉은사, 평양 광법사에서 열린 남북동시법회에서 발표됐다.

남북 불교도들은 "이 땅에 해방의 감격은 사라지고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의 역사가 65년간 지속되고 있다"며 "남북공동선언의 고수이행이 자타불이, 발고여락의 이념이 구현된 현세지상 정토건설의 길이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도들은 "남북 대결과 분열은 일시적인 것이며 화해와 통일의 새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며 "화해와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공동선언실천, 조국통일을 위해 용맹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상언 기자**

동양의 불교문화 연등축제 강조

'백서' 서 내 · 외국인 차별화 밝혀

연등축제는 내국인 대상으로는 불교색을 옅게 해 종교축제라는 이미지를 덜고, 외국인 대상으로는 동양의 불교문화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봉축위는 최근 발간한 <연등회 연등축제-외국인 방문객 백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봉축위는 문화컨설팅업체 '기분좋은QX'에 의뢰해 2006~2010년까지 진행된 외국인 방문객 조사 연구결과 및 국제홍보 업무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 등을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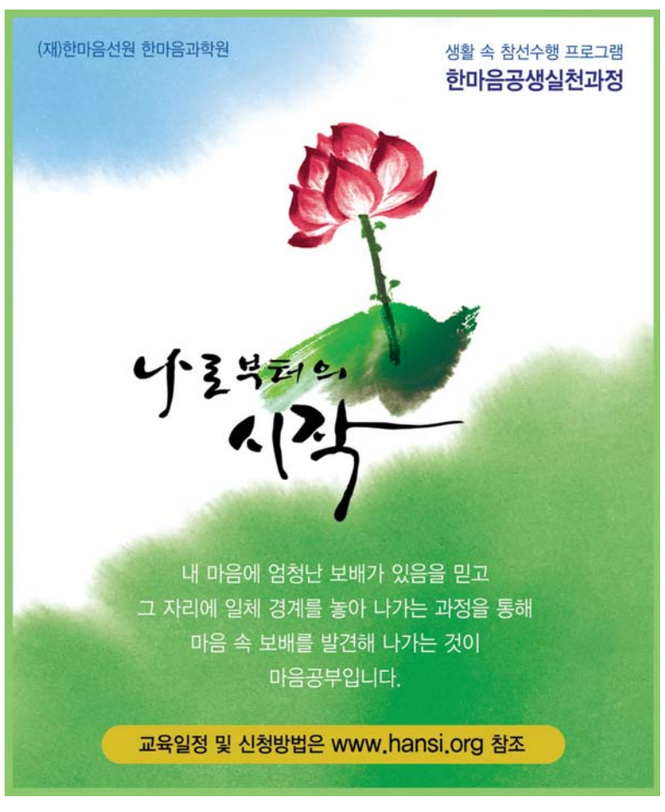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연등축제의 장점을 △시각적 즐거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가져갈 수 있는 기념품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꼽고 '모두의,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축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봉축위 박상희 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재방문객의 꾸준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연등축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近者悅遠者來)'는 법칙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축제인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분석에 사용된 외국인 표본 수는 2006년 78명, 2008년 234명, 2010년 235명 등이다.

조동섭 기자



법왕사 제21회 100인 큰스님 초청
경율론 삼장 백고좌대법회

법왕사에서는 제21회 경율론 삼장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대승불교의 최고 경전으로 일컫는 경율론 삼장 전반을 주제로 8월 27일부터 100일 동안 법랍 30년 이상의 스님 1백분을 모셔서 심도 있는 법문을 하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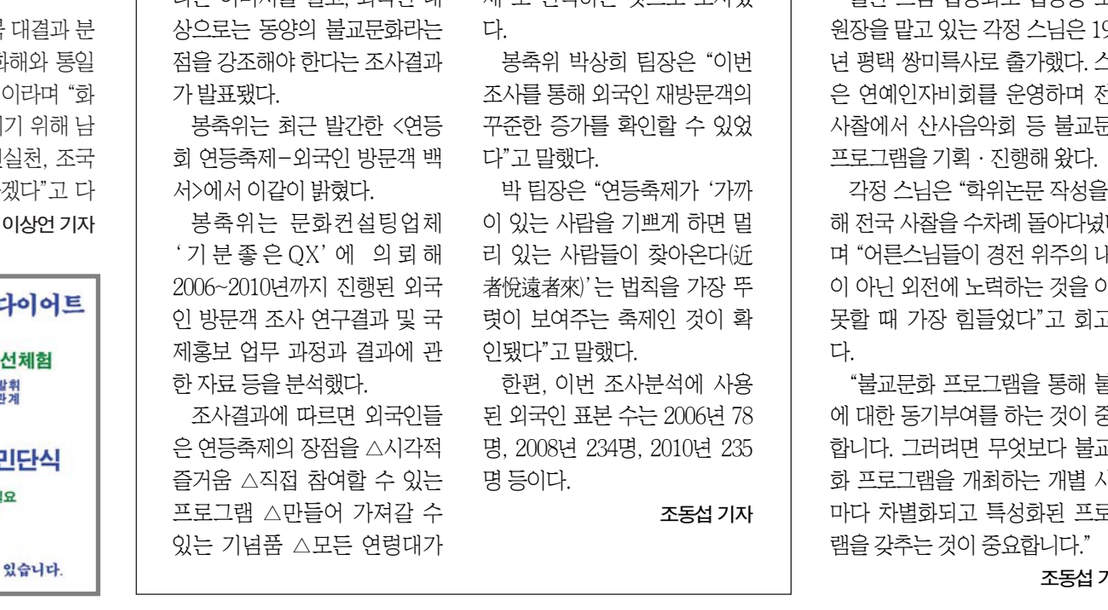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회주 원공 정무 대종사 / 주지 성환 실상 합장

◆ 증명 : 무진장 · 혜정 · 각성 · 지성 · 불심도문 큰스님
◆ 일시 : 2010년 8월 27일 ~ 12월 9일 (100일간)
◆ 법문 : 매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법왕사 큰법당

※ 백고좌법회에 초청하시고 싶은 스님 추천을 바랍니다. 법랍 30년 이상으로 비구 · 비구니스님, 종파에 관계없이 경율론 삼장에 정통하신 스님이면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백고좌법회 법문은 전회분을 법왕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법문 녹음을 담당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 법왕불교대학

초청법사 전반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116번지
TEL. 053)766-3747
053)766-9088
FAX. 053)766-6095
www.bubwangsa.or.kr
인터넷주소창에 "법왕사" 입력

법왕사 제21회 백고좌법회 전야
산사음악회
2010년 8월 25일(수) 저녁 7시 법왕사 광장

출연진

특별출연